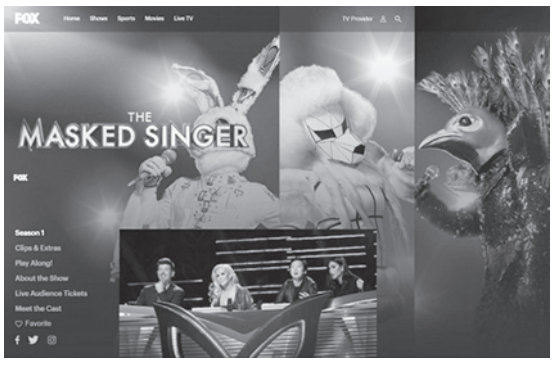
미국판 '복면가왕' 대박 행진

미국에 수출된 한국 MBC TV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복면가왕은 FOX TV에서 미국판 복면가왕인 '더 마스크드 싱어' (The Masked Singer)라는 이름으로 방송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연합뉴스' 가 FOX TV의 발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더 마스크드 싱어' (The Masked Singer)는 매회 1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지난 2일 방송한 1회는 본방송을 936만8천 명(이하 18~49세 시청률 3.0%)이 봤고, 사흘 후에는 총 1천227만 3천명(3.9%)이, 7일 후에는 1천296만 8천명(4.2%)이 시청했다.

미국에서는 주로 시청률보다는 시청자 수로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한다. 보통 1천만 명을 넘으면 '대박' 으로 간주한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빅뱅이론' 시즌12의 시청률이 1.0%, 시청자 수가 691만 명인 걸 고려하면 '더 마스크드 싱어' 의 성과를 추측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VOD(주문형비디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시청성과를 다 합쳐서 본방송 이후 3일, 7일까지 시청성과를 집계하기 때문에 '더 마스크드 싱어' 도 그 기준으로 집계한 것



을 봐야 합리적" 이라고 설명했다.

'더 마스크드 싱어' 는 미국 방송사와 한국 방송사 간 첫 '직거래' 의 결과물인 점으로도 주목받는다.

그동안 미국에 진출한 한국 포맷은 총 3편, '복면가왕' 과 tvN '꽃보다 할배' , 드라마 '굿닥터' 다. '꽃보다 할배' 는 스몰월드라는 에이전트와 NBC 간 계약이었고 '굿닥터' 는 대니얼 대 김의 제작사와 ABC 간 계약이었는데 '복면가왕' 은 MBC와 폭스의 직접 계약이다.

롭 웨이드 FOX TV 예능부문 사장은 "차별화되고 대중적이면서도 독창적이며 코미디 요소까지 있는 포맷" 이라고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미국 언론 서인영 집중 조명 "엔터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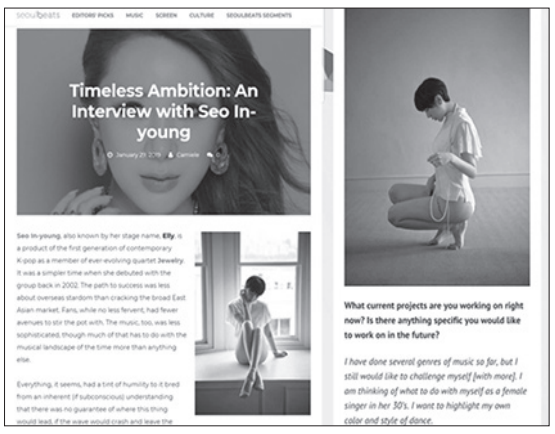
가수 서인영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만능 엔터테이너'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최근 미국 매체 Seoulbeat, WHAT THE K-POP 등은 서인영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 매체는 걸그룹 활동부터 솔로 가수, 예능까지 다방면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서인영의 팔색조 면모와 다양한 장르적 변신을 거듭하는 음악 행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WHAT THE K-POP은 "서인영은 강렬한 댄스뿐만 아니라 가창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경쟁이 치열한 K팝 시장에서 수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라고 서인영의 스타성을 극찬했다.

서인영은 인터뷰를 통해 꾸밈 없는 '인간 서인영' 의 이야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해왔지만 또 다른 장르를 계속 도전해가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서인영은 또 남다른 패션 사랑에 대해 "기회가 된다



면 평소 내 패션을 좋아해주신 분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말해 그의 또 다른 도전을 암시했다.

서인영은 지난해 10월 발라드 신곡 '편해졌니' 를 발매하며 성공적으로 컴백해 '발라드 퀸' 의 입지를 굳혔다.

샌드라 오, 미국배우조합 여우주연상도 수상

한국계 캐나다 배우인 샌드라 오(47)가 미국배우조합(SAG)상에서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샌드라 오는 지난달 27일 LA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25회 SAG 어워즈에서 '킬링 이브' (Killing Eve, BBC 아메리카)로 여우주연상 주인공이 됐다. 앞서 그는 '킬링 이브' 로 골든글로브 TV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 크리틱스초이스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킬링 이브' 는 일도 사랑도 권태에 빠진 여자가 사이코패스 킬러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샌드라 오는 영국 MI5 요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산드라 오는 "후보에 오른 배우분들에게 감사하다." 며 "2006년 제이미 폭스가 내게 '이 일을 계속해라. 넌 잘하고 있다' 고 말해줬다. 2017년에는 리나 웨이스가 '당신은 이미 승리자예요' 라며 날 격려해줬다. 그들의 말 한마디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며 TV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고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249호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자식도 때가 되어야 온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단골로 필자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60대의 K여사님이 있다. K여사는 자식으로 남매를 두었는데 둘째로 낳은 아들은 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큰 딸이 문제였다. 큰 딸은 전문직 여성으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시집도 갔는데 결혼을 한 후에 4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자식을 두지 못한 것이다. 큰 딸이 신혼 초에는 당분간 자식을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임신조절을 한다고 하더니 막상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노력을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딸에 대한 걱정을 하던 K여사가 어느 날 필자에게 찾아와서 시집을 간지 오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한 자기 딸이 언제나 되어야 자식을 낳겠냐고 묻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건넨 말은 "따님은 팔자(八字)에 자식도 있고 현재의 운(運)도 자식운을 돕고 있으니 아마도 내년쯤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K여사의 표정은 필자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K여사가 다시 필자를 찾아왔다. 밝은 표정으로 지으며 K여사가 하는 말이 "제 딸이 임신을 해서 얼마 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손녀를 낳아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 원장님께서 새로 태어난 제 손녀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작명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따님은 타고난 팔자(八字)에 자식도 있고 운(運)도 도왔으니 올해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식도 때가 되어야 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라고 덕담을 해주고 필자가 한참을 고민해서 좋은 이름으로 작명(作名)해 주었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